

행복한 지역 만들기 주력

남원시, 내년도 예산안 9871억원 편성

남원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7억원이 감소한 9,871억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63억원(-1.7%)이 감소한 9,2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6억원(21.2%)이 증가한 665억원을 편성했다.



최경식 남원시장

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세출을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우수 선정으로 도내 유일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확보하였고, 국·도비를 역대 최대인 3,745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가 정부세수 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 본예산 규모와 비슷하게 유지한 것은 지역의 현안 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 부처, 전방자치도에 수시로 출장을 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문화·관광·교육 거점도시로의 도

약 △약자복지 지원과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보육환경 조성 △민생경제 활력 지원 △친환경 미래농업과 6차산업 선도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6개 핵심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제 수입이 감소하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남원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긴축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놓치지 않고 편성하여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내년도 예산안 5293억원 편성

순창군이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5년 예산을 올해보다 184억원 늘린 5,293억원을 편성해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최명일 순창군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64억원(3.3%) 증가한 5,086억원, 특별회계는 197억원(10.5%) 늘어난 2,077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과 안전분야 426억원(8%), 교육과 문화분야 352억원(7%), 환경과 지역개발분야 804억원(16%),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1,294억원(25%), 농림해양수산분야 1,012억원(20%), 산업과 교통분야 390억원(8%) 예비비와 기타분야 808억원(16%) 등이다.

주요 편성 사업은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이마용비 지원사업 △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순창사람상 품격 △노동·장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 군민 생활안정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반영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최명일 군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은 축소하는 등 재정 운영을 효율화해 본예산 편성했다"며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기초자치단체 유튜브 부문 대상

국내 양대 소셜어워드 2관왕

남원시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기초자치단체 유튜브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네트워킹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SNS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기업,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남원시는 지난 7월 '소셜이어워드 2024'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2024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대상을 받아 국내 양대 소셜어워

드 2관왕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시책으로 남원시 TV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별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소통 활성화는 분석이다.

특히 시민다큐, 시민기자단, 영상 공모전 등 시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늘려 온라인 소통 채널로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1년간 '남원시TV' 구독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흑백요리사' 등 각종 인기 프로그램 패러디, '감성 쇼츠' 등 최신 유행하는 영상물을 활용해 유튜브 주



이용층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콘텐츠 제작으로 시청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했다.

남원시 조은영 홍보팀장은 "남원시 TV는 딱딱하고 정보 전달 위주의 기존 시청 영상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친근한 영상물로 시청을 알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친환경 경로당 재탄생

관내 경로당 3개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운수경로당을 포함한 관내 세 곳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특별한 경로당으로 재탄생했다.

군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임실읍 운수경로당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준공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고성능 단열창호, 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는 경로당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로 에너지 성능 저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임실읍 운수경로당, 신평면 원전경로당, 운암면 선거모경로당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세 곳의 경로당에는 총사업비 3억 3000만원(국·도비 보조금 2억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10월 공사가 끝났다.

외벽 단열을 설치하고, 창호를 교체했으며, 고효율 냉난방기와 페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했다.

이 같은 사업추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질이 크게 개선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군은 효심 행정의 일환으로 해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원의 군비를 투입, 120개소에 대해 안전 및 장애물이 없는 편안한 경로당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와 보일러 교체 등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한 여가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능보강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양곡 지원, 공동급식 도우미 활동비 지원 등에도 더욱 신경 쓸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오래된 경로당을 새롭게 친환경 공간을 바꿔서 이용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효심 행정을 추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촌지역 거점 중심 주민 프로그램 활발

남원시가 시 농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종선)와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주민 역량강화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농촌지역개발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심지, 기초거점, 마을만들기)을 통해 기초선된 시설의 활성화와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을 통해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기도 하다.

남원시에서 진행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역거점(중심지, 기초거점, 마을거점)의 원기능 회복과 거점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변화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 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24년 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심지, 기초거점) 완료지구 10개소

의 거점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설정해 각 지구에 적합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 문화, 예술, 체육 등 30여개의 분야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거점의 고유기능인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마사지, 반찬나눔, 동아리 봉사 등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개발사업 '마을만들기'를 통해 조성된 마을별 거점시설의 활성화와 주민들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민포럼, 마을단위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및 사무장, 지역위원회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포럼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청 광장, 성탄절 앞두고 화려한 조명 밝혀

순창군은 지난 20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군청 광장에 성탄트리와 형형색색의 아간조명을 밝혔다.

이번 아간조명은 대형트리 외에도, 눈꽃송이 모양 조명, 하트 모양 조명 등 다채로운 조형물을 설치해 겨울밤을 더욱 아름답게 밝혀 군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최명일 군수는 "비록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아간조명 등을 설치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에 작은 기쁨과 위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경산위 행정사무감사 진행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염봉섭)가 지난 19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염봉섭 위원장은 춘향재 때 경의상가 리플러스 사업이 주변 상가와 상상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내년 축제에는 남원의 특화된 전통 먹거리를 활용할 것과 보조금 환수 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숙자 부위원장은 계절근로자 농가의 만족도와 불발 농지전용 단순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으며, 소태수 위원은 농촌체험 휴림마을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요청했다.

윤지훈 위원은 울창 목공예 사업 관련하여 내구성이 낮고 비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고 상용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기열 위원은 태안광 신청이 많으나 승배전권이 없어 전력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매산업단지 변전소 설립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현수 위원은 사매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전문성 있는 직원 배치를 강조하고, 한명숙 위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